

디모데후서 2:24-26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1. 마귀의 올무

올무 [snare]란 덫 또는 함정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냥꾼이 들짐승을 잡을 목적으로 짐승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잘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동물의 다리나 목이 한번 걸리면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올무에는 미끼가 달려 있어서 동물들을 그곳으로 유인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쥐덫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해 외곽의 웅천에 살 때에 산에 가보면 가느다란 철사로 만든 올무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산에 사는 토끼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밤에 다닐 때에 이러한 올무에 쉽게 걸려서 잡히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야비하면서 잔혹한 사냥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하여 이러한 올무를 놓는데, 사도 바울은 윗 구절들에서 주의 종들이 온유함으로 이렇게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침으로써 그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의 올바를 상태를 되찾게 도와 줄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끼 [The Bait of Satan]’의 저자인 John Bevere 는 이 책의 첫장에서 쓰기를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끼는 바로 ‘실족의 미끼 [bait of offense]’라고 지적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1 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라고 남을 실족 시키는 일의 심각성을 말씀 하셨습니다. ‘실족시키다 (to offend)’의 희랍어는 *skandalon* 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사냥꾼이 사용하는 올무에 미끼를 다는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남을 사로 잡기 위해 사용하는 올무로서 신약성서에 사용됩니다.

다윗은 시편 55 장에서 자신에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자신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동료 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5:12-14]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와 가장 친근한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디어들은 자주 가족간 불화로 인한 폭력, 살상, 고소 등의 불미스런 사건들을 보도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렇게 실족을 이용하여 가정, 교회, 커뮤니티, 그리고 나라를 자신의 올무에 넣고 화평

대신에 불화와 증오와 폭력과 죄를 유발시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족을 경험하고 괴로워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고 사탄은 자기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음에 기뻐 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실족에서 벗어남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실족 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는 언사나 행동, 자기 중심적인 언행으로 우리를 폄하하거나 낮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신조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주관이 상대방의 그것과 상치될 때에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감정이 상하여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차를 운전할 때에 상대방은 법규를 잘 지켜 운행했는데 내가 스스로 오버해서 길을 벗어나 사고를 내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족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의 시작은 우선 실족함이 사탄의 올무에 빠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잘못에 의하여 감정이 무척 상해서 도저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고, 그를 대면하는 것도 힘들고, 더 이상 그와 교제하기 불가능하여 절교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내가 아무리 실족의 상황에서 잘못이 없었고 온전히 당하기만 한 피해자이었을 지라도, 자신이 현재 사탄의 올무에 빠져 있는 상태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정과 그 올무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는 긴급성을 갖지 않으면, 자신은 계속 사탄의 손에 의해 그 마음과 인생 속에 화평과 사랑 대신 불평과 미움, 원망과 비난,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한 저주감으로 자신의 채움으로써 구원의 큰 기쁨과 축복을 온전히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올무에 잡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입어 실족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기도]

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사탄이 놓은 올무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실족함이 당연하였고, 상대방이 제게 잘못하였다고 자신의 실족함을 정당화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사죄를 해야만 된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이러한 상태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진 불행한 상태임을 인정합니다. 나 스스로 이 올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 속 깊이 나에게 실족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메시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채찍질하고, 정죄하고 못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그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십자가에 달린채 기도하신 그 마음을 나도 배워서, 나를 실족시킨 자들을 용서함으로써 나를 움매고 있는 이 올무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